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훈련을 지도하시고 옹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륵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섬상 륵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섬상륙전투훈련에는 조선인민군 륵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들의 전투원들과 각종 구경의 도들, 잠수함을 비롯한 전투함선들, 추격기, 폭격기, 수송기편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순간 훈련장은 불달린 화약마냥 활화산같이 노효했다.

강철포신들에서 련속 날아가는 시뵈건 불줄기들, 하늘을 썰며 급강하하는 비행대들과 물갈기를 세차게 날리며 돌진하는 해군함정들, 바다속을 헤가르는 잠수함에서 뿜어진 증오와 복수의 명증탄들로 하여 하늘땅, 바다가 세차게 뒤흔들었다.

《적》들이 도사린 섬에서 삼단같은 불기둥이 연해연방 솟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잘 제인 협동작전으로 련속 강타를 들이대는것을 보시고 타격시기를 바로 정하고 신속성, 정확성, 일치성을 보장하여 집중화력타격을 들이대면 적들을 초절 임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섬에 대한 강력한 화력타격에 이어 항공 륵전병들의 전투행동과 배합한 보병의

섬상 륵전투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쌍안경으로 전투원들이 섬을 베타같이 타고앉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잘한다고, 싸움준비에서 매일 이런 늦는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훈련으로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이해온 일당백싸움군들이 다르다고 치하하시였다.

섬을 완전히 점령하였다는 전투결속신호탄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제전법의 요구가 그대로 구현된 섬상륙전투훈련이 잘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함을 타시고 바다에 나가시어 전투함선들을 사열하시며 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신성한 우리 조국의 서남전선해역은 한줌도 못되는 적들때문에 때없이 위협을 받고있다고, 얼마전에도 적들이 갈겨낸 포탄이 우리 령해에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있었다는것을 상기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를 매우 엄중시하며 단단히 버르고있다고, 원수들이 열점수역에서 잘못 정한 날에 잘못된 선택을 두번다시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드실것이라고 준렬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

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켓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에서 전략군 참모부가 작성한 발사계획, 설정된 비행케도와 목표수역복색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전술로켓발사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순간 어두운 장막을 깨고 대지를 밝히며 솟아오른 전술로켓들이 조국사랑과 원수중오의 일념으로 응축되였던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제정된 목표를 향하여 창공을 기운차게 헤가르기 시작하였다.

실질을 방불케 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이번 전술로켓발사훈련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의 전술로켓들의 명중성과 전투적위력 나남김없이 과시되었으며 긴급정황발생시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투행동질서와 화력임무가 정확히 규정되고 각이한 적목표에 따르는 사격방법이 완성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전술로켓발사훈련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신속한 기동과 배합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략군의 싸움준비와 주제적인 로켓전법을 적용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아무리 선

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로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한 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고 하시면서 전략군부대들이 앞으로도 오늘 진행한 실천과 같은 훈련들을 통하여 로켓무분 싸움준비를 더한층 강화하며 즉각적인 발사태세를 항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힘으로 압살하려고 날뛰는 적들의 무분별한 대결광증을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으로 제압해나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3대혁명붉은기 옹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정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돌아보시면서 방어대에 어려있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포진지에서 방어대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신 다음 포사격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어대군인들이 목표를 통쾌하게 명중타격하는것을 보시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쏘았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명포

수, 명사수로 자라난 군인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방어대 1중대 1소대 1포에 명포수상장을, 군인들에게는 명포수메달과 명포수휘장을 수여할데 대한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어대군인들의 기계체조훈련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옹도방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방어대 1중대와 3중대의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창고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실태와 군인가족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일일이 알아보고 섬초소군인들과 가족들의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어대에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옹도방어대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1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군인들,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을 방문화 때마다 나는 강성국가건설을 목표로 삼고있는 조국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것은 평화화환경이라는것을 실감하군 한다.

그런데 안정되고 평온한 환경보장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적인 무력증강과 핵전쟁연습을 강행하며 어떻게하나 조선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시정책에 의해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고 제3차 세계대전이나 세계열핵전쟁과 같은 세 전쟁이 미연에 방지되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조선의 확고부동한 평화수호의지와 무진막강한 전쟁억제력의 결과라는것이 조국에서 찾게 되는 정답이다.

조국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인민군대의 섬상 륵전투훈련, 전술로켓발사훈

련, 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지도하신 소식을 알게 됐는데 그분의 견결하고 강인한 평화수호의지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분께서는 전략군 장병들에게 우리 인민에게 가장 소중한 평화화환경을 그 누가 마련해주는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팔고 살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평화수호를 위한 애국의 장정

은 일가견이다. 미국의 침략전, 정복전으로 이라크가 두차례나 황폐화되고 전 유고슬라비아가 미사일세례를 면치 못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이 불모의 땅으로 된것과 같은 비극이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지만 어제도 오늘도 조선반도에서는 평화와 안전이 믿음직하게 보장되고있다.

나에게는 작년에 로씨야사람인 라브렌체 구르드지에브가 쓴 글의 한 토막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 이 지구상에 조선처럼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겪은 나라가 없으며 이처럼 큰 시련과 난관을 이

겨내며 반세기이상 조국수호와 세계평화수호의 싸움을 벌려 승리한 나라는 없을것이다. 반세기가상의 봉쇄, 정전속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세계평화수호, 이것만으로 조 조선은 웅대 세계의 경탄을 받아야 한다. ...

력사가도 정치가도 군사가도 아닌 평범한 작가의 견해이지만 훌륭

한 김정은령도자는 오늘의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이며 조선의 힘이고 백전백승의 상징이시다.

부연하건대 그 어떤 반공화국 적대세력도 로켓발사든, 유도탄발사훈련이든 자기의 정당방위를 위한 조선의 자주적이고 자위적인 대응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구설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것이 아니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한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조국의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소감이다.

러도, 옹도, 화도방어대들과 해군부대들을 비롯하여 전선에서 전선으로 반제자주, 평화수호의 길을 이어가시며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고계시는 김정은령도자께서 계시어 조국강대로 영원한 평화가 있을 날이 꼭 있게 될것이라는것을 믿어마지 않는다.

재중동포 현 광 문

## 승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쳐다

주제59(1970)년 이른 봄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안남도 온천지방으로 현지지도를 떠나시였다.

평양-남포도로를 따라 달리는 승용차가 통강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부관은 영문을 몰라 그이께 온천으로 가시기 않는가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온천으로 간다고 하시였다. 부관은 다시금 의아해지였다.

온천은 통강읍을 거치면 40리 가량이고 남포방향으로 하여 가면 60리길이다. 더구나 지금껏 온천방향으로 가시거나 또 평양으로 되돌아오실 때면 일부러라도 꼭꼭 통강읍을 지나 다니군

## 세 해 동안 에 돌아

하신 그이께서 왜 남포방향으로 에돌아 가시려는지 알리 없는 부관은 자못 얼떨름해하였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부관에게 옥도리알을 지나고싶지 않아그런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부관과 운전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 시기 옥도리를 지나시는것은 수령님의 기쁨이였다. 그 곳에는 그이께서 일찍부터 잘아시는 림근상농민이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는 전국농민열성자대회때 밀밭조와 파종기를 만든 그의 토론을 들으신 때로부터 그를 진짜농민이라고 하시며 각별히 믿고 내세우시며 대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그때부터 그이께서는 세해째 온천일대로 가실 때에는 남포방향으로 에돌아 다니시였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때로부터 20년이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시기부터 민족분열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어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통일로선과 방안들을 조국통일3대원장으로 정립하시고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밀에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정책, 방안과 방도들은 가장 정확하고 공명정대한것으로 하여 오늘날은 온 겨레의 지지를 받고있으며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일유훈관철을 최대의 승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커다란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다.

남조선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6.15시대의 모든 성과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였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대아시아전략으로 새로운 팽전구도가 형성되고있는 동북아시아지

역정세는 복잡다단하다.

렬강들의 첨예한 갈등과 패권경쟁이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격화되고있는 오늘 이 땅의 주인인 북과 남이 백해무익한 대결을 지속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운명은 외세에게 통략당하게 될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겨레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현시기 민족약애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무역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북과 남은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적대와 대결이 극도로 달하여 사소한 언행이나 사소한 마찰도 위험한 충돌과 민족적파멸로 이어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다.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해 온 겨레가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에 동족끼리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비극적 사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북과 남은 민족의 운명을 위해 새로운 관점, 새로운 림장에서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면 덮어놓고 적대시하던 팽전시대의 관념에서 결단코 벗어나야 한다.

각이한 사상과 제도를 가진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서로 적대시하고 싸워야 할 그 어떤 리유로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적대관념을 버리고 동족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꿀 대응단을 내려야 한다.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산물인 외세와 야합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

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헌신과 투쟁의 귀중한 열매인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화해와 단합을 위한 기본요구이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이 부정당하고 대결에 악용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북남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6.15, 10.4선언을 비롯하여 북남합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2. 북과 남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천년만년이 가도 외세는 우리 민족의 념원과 리익을 대변해줄수 없다.

이것은 사대로 망국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과거사와 오늘 외세개입으로 내전과 혼란에 빠진 여러 나라들의 참혹한 현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북과 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나라의 분렬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회색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과 남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림장에서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나가 《지지》를 청탁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제제》와 《공조》를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이다.

우리의 핵은 통일의 장에도, 북남관계개선의 걸림돌도 아니며 공화국의 핵무력은 외세의 침략자들을 억제하고 자주통일과 민족민대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핵문제를 거들며 외부에 나가 《공조》를 청탁하는 무모한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북과 남은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려는 외세의 부당한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공동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것이 없다.

우리는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풀어나가려는 림장에 선다면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갈것이다.

3. 북과 남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신평프로세스》나, 《드레즈덴선언》이니 하는 허울을 쓰고 《제도통일》, 《휴수통일》을 추구하고있는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적행위이다.

북과 남에 군 70년동안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서로가 자기의 체제를 고수하고있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은 곧 전쟁의 길의 의미한다.

동족이 장구한 기간 갈라져 살아온것만도 가슴터지는 일인데 북과 남이 자기의 제도만을 고집하여 전쟁의 화를 불러들인다면 그처럼 수치스러운 자멸행위는 없을것이다.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은 련방련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한다.

4. 북과 남은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화해와 단합의 유리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는것은 극도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동족사이애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온갖 비방증상부터 종식시켜야 한다.

북남사이의 혈연적유대와 동포애의 정을 가로막고있는 법적, 제도적조치들을 해제하고 접촉과 대화, 협력과 대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종북척결》소동으로 각계각층의 통일열망이 유린당하고 반공화국적대의식이 고취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하루속히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제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팽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것이다.

우와 같은 우리의 원칙적립장들과 선의의 조치가 실현된다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정상화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계기가 마련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승고한 책임감에서 출발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온 겨레가 적극 지지하고 남조선당국이 그에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제 103(2014)년 7월 9일  
평 양